

# 中國新疆省에서 발행된 滿文詩集

《錫伯族的 移住의 노래》에 對해서

(Sibe uksurai gurinjihe ucun)

崔 鶴 根\*

I) 금년 정초에 日本의 知人 多賀래아女史의 年賀狀에 「去年末 外國여행중에 錫伯(sibe)族의 冊 一卷을 구득할 수 있어 마음속으로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문귀가 쓰여 있었기에 즉시 그 複寫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2주일후에 複寫本이 송부되어 왔다.

筆者는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이 책을 접하고 읽어 보았다. 왜냐 하면, 필자는 아직까지 古典의인 滿文書籍만 接해 왔지만, 現代版의 滿文書籍은 만져 볼 수 없었으며, 더우기 「錫伯族」(sibe)은 新滿洲族(ice manchu)이지만 현재까지 滿洲文字와 滿洲語를 사용하고 있는 몇 안되는 部族中의 하나이며, 또 과거에 臺灣大學 邊境研究所 教授이며 研究員이었고, 또 筆者의 親知이었던 故 廣錄氏가 이 錫伯族人이었으며 또 그의 고향이 中國의 新疆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받아 본 즉, 이 책은 불과 70여 page의 小冊子이었고 더우기 謄寫板으로 찍어낸 초라한 책이었으나, 1982년 8월에 “sinjiyang niyalma irgen cubanše cubanlaha”(新疆出版社 出版)으로 되어 있어 극히 최근에 발행된 것이었고, 필자의 여러가지 飢渴, 특히 語學의인 好奇心을 매꾸어 주는데 충분한 것이었다.

더우기 필자가 이 冊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된 이유는 1982년 8월에 발간된 이 책에 「舊清國」(cing gurun)을 「祖國」(mafagurun)이라 지칭하고, 2백년전 그들의 선조들이 滿州地方에서 이 新疆省의 隔離된 萬里밖의 邊境에 移住해 온 것을 서술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에게 진실하며 汪洋한 功業과 驚異의인 行跡을 빛내며 開示한……』(gurun de tondo irgen de unengi, desereke gungge faššan ferguwecuke yabun songko be eldebume neilehebi)<sup>(1)</sup> 그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책(詩集)을 발행했으며, 또한 錫伯族의 「長老賢士」(sengge saisa)인 “guwan sings't'ai”(關星探?)<sup>(2)</sup>라는 사람이 전수되어 오는 「노래」(ucun)을 다듬고 정리해서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이 「노래」(ucun)에 그들 錫伯族이 祖國

\* 서울大學校 人文大 國文科 教授

(1) 卷首의 “šanbe”의 序文(yarusun)中에서.

(2) 이는 분명히 漢字名이고, 그 가능한 漢字를 들어 보았으나 정확한 것은 불명.

을 떠나서 이 異域萬里의 天涯의 邊境에 千苦萬難을 겪으면서 오지 않으면 안되었던 歷史的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

Ⅱ) 그러면 이 錫伯族이 이백년전에 어찌해서 이 만리가 隔離된 天涯의 땅, jun yar<sup>(3)</sup>(準葛爾)로 이주해야만 되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 보기로 한다.

이<sup>(4)</sup> 錫伯族의 jun yar(準葛爾)地方으로의 이주는 十八世紀의 六十<sup>(5)</sup>년에 시작되었는데, 錫伯族移住의 책임을 맡은 한 官員이 錫伯族의 兵士와 및 그 가족을 혼합해서 瀋陽(mukden)의 管下에 있는 지방의 15個城에서부터 東方邊<sup>(6)</sup>境地方에 있는 “ili”(伊犁) 지방에 駐屯시키기 위해서 인솔해 온 것이다.

그것은 乾隆 22년(서기<sup>(7)</sup> 1757) jun yar지방에서 淸朝에 대해서 反旗를 들고 亂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진압 평정하고, 時象의 要望하는 데에 영합해서 즉시 漢軍(ujen cooha)<sup>(8)</sup>의 유능한 將軍을 파견하고, 城과 그 지방을 관할해서 다스리는 것을 획책하고, 요충과 중요지점에 漢軍으로 하여금 주둔케 하여 그 지방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西北諸省의 각 지방에서 旗兵을 징집 동원하고, 伊犁<sup>(9)</sup>지방에는 大軍이 주둔하기로 되었었다.

錫伯族이 東方에 移住하여 伊犁地方에 駐屯하게 된 이유는 伊犁地方은 隔離斷切된 邊境이고, 그 위치가 東北二路의 「咽喉」(목)부분에 해당하는 요긴한 위치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乾隆 27년에 伊犁地方에 將軍廳을 營置하고 將軍을 駐屯시켜서 乾隆 28년(서기 1763년)에서부터 黑龍江(Sahaliyan ula), imiyangga jase, jai liyang jeo(州), juwang lang등의 지방에서부터 계속해서 旗兵士들을 동원해서 주둔시켰지만, 그러나 그 병력이 아직 충분한 것은 못되었었다.

따라서 국경지방의 수비는 견고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리고 또한 伊犁의 서북방에 “tarbahatai”<sup>(10)</sup>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伊犁지방에 대단히 가까운 뿐만이 아니라, 또

(3) “jun yar”는 蒙古語로 “jegün yar” 즉 「左便, 東方」을 의미하나, 원래는 「左翼」 또는 「左旗」, 즉 左便, 東方에 자리잡은 蒙古族의 代名詞이었는데, 이것을 “ili”(伊犁) 지방의 지명으로 대용된 것은 淸朝때부터이다.

(4) 이 錫伯族移住의 歷史的 背景은 本書 “Siyofu”(人名)에 의한 註釋(suhen)을 주로 參考했다.

(5) 「十八世紀의 六十年」은 錫伯族의 僥倖인듯하며, 즉 서기 1760년을 말하고 이는 淸高宗 乾隆 25년에 해당한다.

(6) 現中國新疆省의 “ili”(伊犁) 지방은 地圖上으로는 滿洲의 「西方」(wargi)에 위치함에는 틀림없는데 「東方」이라고 했다.

(7) 이 「西紀」를 “sibe manchu”는 “uhe sucungga”로 표기. 「總元」, 또는 「紀元」이 된다.

(8) 淸朝興起時에 淸軍에 투항한 漢人의 都統, 佐領, 兵士등을 지칭해서 “ujen cooha”(漢軍)이라 칭함. 그러나 文字 그대로는 「重軍」(ujen cooha)이란 뜻이다.

(9) 伊犁(ili)는 天山北路에 속하는 지명이고 “jun yar”語로 「光明顯達之謂」라 하고, 또 蒙古文語로 “ile”는 「明瞭하다」를 뜻한다. 또 「欽定西域同文志」, 上册 卷一, 二十二에 依하면, 「漢」時에는 「烏孫國地」, 北魏때는 「悅般國」, 「周」時에는 「突厥地」……云”이라 기록되어 있다.

(10) “tarba<sub>7</sub>-a”, 蒙文語. 「족제비」. 이 지방에 족제비가 많기 때문에 “tarba<sub>7</sub>atai”. 이곳에는 本來突厥諸族이 거주하고 있었다. 漢文으로는 「塔爾巴喝臺」로 表記한다.

한 “šuwe altai”와 “k’obdo” 등의 지방과 聲響이 相通할 수 있었다.

다만 伊犁지방에만 軍士를 駐屯하고 “tarbahatai”에는 주둔시키지 않는다면, 東北二路가 상호간에 위력을 이어 받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tarbahatai”에 軍士를 주둔시키고 偵探의 伏兵을 두게 되면 東北二路가 서로 위력이 있게 되고 伊犁지방의 軍士의 위력도 널리 알려지게 된다.

만약 “tarbahatai”에 城을 쌓고 伊犁지방에서 兵士를 파견하고 교체해서 수비한다면 伊犁에 駐屯한 兵士를 동원해서 쓸 만큼은 부족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의해서 伊犁의 駐屯 軍將軍인 “mingšui”가 朝廷에 奏言하여 말하되,

『듣건데, 瀋陽에 駐屯하고 있는 兵士의 數가 一萬六·七千名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錫伯族의 兵士는 四·五千名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生業을 버리지 않고, 평소대로 放牧도 하고 漁獵도 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武衛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錫伯族의 兵士中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고, 함께 파견해서 주둔시킨다면 본래의 黑龍江省兵士와 상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上疏했다.

이에 즉시 mingšui 將軍의 上疏에 의거해서 乾隆帝는 勅旨를 내려서 瀋陽城管下 諸城中에서 錫伯族의 官員과 兵士를 징발하고, 가족과 혼합해서 “tarbahatai”에로 파견하고 駐屯시켰다.

이 史實은 바로 乾隆 29년(서기 1764년)의 일이었고, 瀋陽城 管下 諸城에서부터 가족들과 함께 “tarbahatai”에 駐屯할 錫伯族의 官員과 兵士들을 1,020名을 선발하고 가족과 혼합해서 총 3,265名을 파견시켰는데, 이들을 二部隊로 分隊해서 출발시켰다.

제 1 대에는, 防禦官(tuwašara hafan i jergi janggin)<sup>(11)</sup> 5名, 驍騎校(funde bošokū) 5名, 兵士, 499名, 가족과 혼합해서 총 1,675名, 이들을 瀋陽城의 鑲黃旗(kubuhe suwayan i gūsa)<sup>(12)</sup>의 協領(gūsaida)<sup>(13)</sup>인 “amahūlang”에게 위임하고 4월 10일에 출발했다.

제 2 대는 防禦官 5名, 驍騎校 5名, 兵士 501名, 家族과 混合해서 총 1,600名을 siong joo城의 旗에게 위임해서 4월 19일에 출발했다.

이 一團 大部隊의 錫伯族의 官員과 兵士들이 老若을 불문하고 相互扶助하면서 牛車를 끌면서 그들 자신이 54년간을 살아 오던 고향인 瀋陽에서부터 떠나서, 彰武臺<sup>(14)</sup>의 변두리 門을 통과하고 kerulon路和 Monggo路를 거쳐서, 그해의 8월 24일과 25일에 二隊의 人馬가 “uliyasutai”에 도착했다.

(11) “tuwašara hafan i jergi janggin”은 省城에 駐屯 防衛하는 武官을 말한다. “janggin”은 漢文으로는 「章京」으로 표기하나, 원래는 「將軍」이 訛轉된듯함.

(12) “gūsa”(旗)는 全體的으로 八旗가 있는데, 軍隊의 單位가 되고, 各旗마다 一定한 旗가 있는데, “kubuhe suwayan i gūsa”(鑲黃旗)는 「黃色의 幅地에 紅色으로 갖들른 旗」.

(13) “gūsa i da”는 「協領」이라 稱하고, 文字 그대로 各旗의 司令官에 該當한다.

(14) 「彰武臺」는 “janggūtai”로 稱하고 瀋陽의 변두리를 말함.

8월의北路는 상당히 추워서 沿路의 초원이 거의 말라가고 계속해서 行軍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uliyasutai에서 잠깐 쉬면서 겨울을 보냈다.

다음 해 봄 3월 10일을 전후해서 uliyasutai에서 출발하고 伊犁를 향해서 행군해 오면서, K'obdo를 통과하고, korcis山을 우회해서 altai를 지나고, ercis江을 건너서 hobuksar, cahon obo, jurhūju, cahan hojir, altan emil, sar usu 等地를 통과하고 다시 emil, barluk, bortala등지를 거쳐서 7월의 20일과 22일을 전후해서 伊犁로 진입했다.

錫伯族의 官員과 兵士가 가족과 함께 이동하며, 萬里의 天涯의 邊境에 駐屯하러 가는 길에, 千辛萬難을 경험하며, 추위의 더위에 시달리고, 굶주림과 濕氣에 부대끼며, 病과 災難에 逗留하기도 하고, 주검과 기진맥진에 이르렀어도 살아 있는 한, 충성을 잊지않고 용감한 錫伯族은 국경을 방위했으며, 토지를 개간하고 祖國의 安寧을 확보하기 위해서 一片丹心으로 萬難을 이기고, 마침내 1년 5개월을 行軍한 뒤 伊犁에 도달했다. (15)

Ⅲ) 「錫伯族의 移住의 노래」는 錫伯族이 그들의 고향에서부터 分家하여 이주하는 고통과 萬里行路中の 형언할 수 없는 노고를 회상케 하며, 다시 移住定着한 후에 國家(淸國)의 막중한 國境을 수비하는 빛나는 명예를 그들 스스로 詩로 읊었으며, 이것을 「노래」로 노래 불렀었다.

이 노래! 이 詩! 어느 때에는 「移住의 노래」라 일컬었었고, 또 어느 때에는 「故鄉의 노래」로 名稱하면서, 해가 지나고 時代가 바뀌더라도 口口相傳해서 진수해 내려왔었다.

20세기의 40년대에 이르러서는 錫伯族의 유명한 詩人인 guwan sings't'ai(關星探?)長老賢士가 정신과 힘을 소모하며 역사와 古詞를 상세하게 조사해서, 먼저 史傳의 대략을 草稿하고 再三再四 정리해서 오늘날의 「錫伯族의 移住의 노래」를 완성했다.

이 노래! 이 詩! 그 文章이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歷史的인 事實이 여기 저기 點綴되어 있다.

모든 독자들이여! 남김없이 다 읽으시라. 그리고 깊이 해석하기를 힘쓰시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명예와 傳記를 풍부하게 하시라!

그리고 邊境을 수호하는 忠誠과 祖國을 建立하는 과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시라! (16)

이 詩集의 目次(hacin meyen)에 의하면 모두 9篇의 詩가 수록된 것으로 되어 있다.

- 1) 「錫伯族의 移住의 노래」.....(1)  
    guwan sings't'ai; 整理해서 記錄함.
- 同上 註解.....siyoofu;.....(12)
- 2) 「머느리 下定禮(約婚)의 노래」.....guwan sings't'ai;.....(34)
- 3) 「han tiyeng geyer를 讚揚」하는 노래 .....Siyu mu;.....(41)

(15) 以上은 同書 pp. 12~17까지의 註解의 翻譯이라고 할 수 있다.

(16) 以上은 同書 pp. 17~18의 註解의 翻譯이다.

- 4) 「님을 보내노라」.....Siyu mu .....(50)  
 5) 「나물(菜)을 함친다.」.....X·B .....(56)  
 6) 「galcuha의 勝利」.....maya .....(58)  
 7) 「金獸」.....uhesu .....(61)  
 8) 「錫伯人の 狩獵」.....Sahalayeijo .....(65)  
 9) 「三十四名の 勇士를 痛哭하노라」.....pa·toba .....(68)

그러나 乾隆年間に 乾隆帝가 jun yar지방을 평정하고, “gedeng”山에 세운 表彰碑의 碑文이 詩形式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10首가 실려 있는 것으로 된다.

이 중에 3) 「han tiyeng geyer를 讚揚하는 노래」는 끝에 「1949년 gūlin에서」가 기록되어 있고, 4) 「님을 보내노라」와 9)의 「34名の 勇士를 痛哭하노라」의 끝에는 자기 「1948년 gūlin에서」가 기록되어 있다.

Ⅳ) 그러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詩 몇 首를 우리글로 옮겨 보기로 하겠는데, 筆者本人이 詩人이 아니고 또 詩才가 없기 때문에 혹은 散文的인 것이 되지 않을까 저어하나,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原文을 Romanize해서 기록하고,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對譯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1. Sibe uksurai gurunjihe ucun. guwan singts'ai teksileme ejehe.  
 錫伯 一門의 移住해온 노래. 關 星 探(가) 정리해서 기록했다.

jungg'u i dergi amargi,  
 中國의 東北(地方)

ili sere emu hošo;  
 伊犁라하는 一角은

uksurai emhun erinde,  
 一門이 외로웠을 때에는

usun gurun oho.  
 험악한 나라 이었다.

(一) (17)

jun yar i enen dawaci,  
 準葛爾(族)의 후에 다와치(達瓦齊)가,

joritai facuhūn be deribuhe;  
 고의로 반란 을 시작했었다.;

(二) (17)

juwe jiyangjiyun bandi yungcang,  
 2인의 將軍인 반디(班第)와 용창(永常)이

jakan i bata be jafaha.  
 잠간 사이에 적 을 잡았도다.

amala geli facuhūn oho,  
 그뒤에 또다시 반란이 일고,

(17) 다음에 「註」를 表示함.

(三)

amursana inu ubašaha;  
아무르사나(阿睦爾撒納) 또한 背叛했나니;

batai hūsun etuhun de,  
적의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四)

barkul ci joo hūi be fidehe.  
바르굴(地方)에서부터 조오 후이(兆惠)를 동원했었다.

ambai coohai horon de  
大 軍의 위세 에

amursana naranggi burulaha;  
아무르사나는 드디어는 도망했나니;

arga akū ukame yabufi,  
할 수 없이 도주해 가서,

abka ilha de gukuhe.  
天 花 에서 멸망했었다.

goro jecen be feshelehe,  
먼 변경 을 치워버렸나니,

gūnidame elhe be bodoho;  
深思해서 평화 를 籌畫했도다!

gūsai irgen tebunere be,  
旗 民들이 駐防하러가는 것을,

gūlmin arga obuha.  
장기간에 제락을 세웠도다.

manju ejen i hese bihe,  
滿洲 主上의 勅旨 있었나니,

mukden jiyangjyun de wasika;  
盛京의 將軍 에게 下敎했도다;

minggan sibe be sonjofi,  
千名의 錫伯人을 선발해서,

ili de tebune seme afabuha.  
伊犁에 駐防하러 가라하고 下命했나니.

mukden goloj sibe sembi,  
盛京 省의 錫伯人들은 말했다.

morilame mūterakū tatsšambi;  
말은 타지못하고 팔고가게 되었구나!;

mujime songgome arga akū,  
흐느껴 울면서 하는 수 없이,

muterei teile katunjambi.  
힘있는데까지 참아야 되겠구나!.

girin golo i irgen sembi,  
吉林 省의 백성들은 말했다.

giranggi yali ci fakcambi;  
뼈가 살에서 떨어져 나가는구나!;

gingsire songgoro gosihon de,  
흐느껴 울면서 괴로움 에

g'eng i niyaman mejembi.  
경소리를 내며 심장이 부서지는구나!.

sahaliyan ula i irgen sembi,  
黑龍 江省의 백성이 말했다.

sadun niyaman ci delhembī;  
사둔내가 친척에게서 이산하는구나!;

songgoro fara gosihon de,  
목이메어 울고 괴로울 때에는

selei niyaman mejembi.  
쇠로된 심장도 부서지는구나!.

gufu gugu fudenjimbi,  
姑夫와 姑母가 餞送하러 오고,

gubci acafi songgombi;  
모두가 만나서 우는구나!;

guwere ukcara arga akū.  
죄를 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gugu falhi delhembī.  
從兄 從弟가 작별하는구나!;

nakcu nekcu fudenjimbi,  
外叔과 外叔母가 餞送하러와서

narašame tatašame songgombi;  
서로 붓잡고 서로 끌면서 우는구나!;

nakara tutara arga akū,  
멈추며 뒤도라보면서 할 수 없이

nakcu ejen delhembī.  
外叔은 主上을 작별하는구나!.

uksun mukūn fudenjimbi.  
宗室 一族이 송별하러와서.

uhei acafi songgombi;  
모두가 만나서 슬퍼하는구나!;

ujen jecen be tuwakiyara jalin,  
邊 境 을 수비하기 위해서

uksun mukūn ci delhembī.  
宗室 一族 과 작별하는구나!.

niyaman gucu fudenjimbi

부모와 친구가 송별하러 와서

niyaman fintame songgombi;

부모는 통곡하며 우는구나!

ili jecen be tuwakiyara jalin

伊犁 변경을 守準하기 위해서

niyaman gucu ci delhembu.

부모와 친구에게서 작별하는구나!

duin adaki hebešedumbi,

모든 이웃들이 함께 의론했다.

dubentele fakcarangge ere sembi;

끝까지 이산하는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duin biyai juwan jakūn de,

四 月 的 十 八 日 에

delhere buda ulebumbi.

작별하는 밤을 나누어주었도다!

eifu kūwara de genembi,

省 墓 하 리 갔는데

eyeme sekiyeme songgombi;

물을 뿌리면서 슬피우는구나!

ereci enteheme fakcafi,

이제부터 영원히 이별하나니,

erime wecerengge we bimbi?

비로 쓸고 제사지낼사람 누가 있으리오?

hūwantahūn eifu be werimbi,

별저벗은 墓 를 남기리니,

hoošan be we deijimbi?

종이 를 누가 사르리오?

boigon guci genembi,

가족 모두가 가는데,

boigon be we nonggimbi?

가족 을 누가 더 보태리오?

generakū seme ombio?

못가겠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겠는가?

gurun i fafun guwebumbio?

나라 의 법률이 용서하겠는가?

goidame narašame songgojibe,

오래도록 연 々 하며 통곡하더라도,

suwe ukcame mutembio?

다신들이 능히 해탈할 수 있겠는가?



songgoho seme tusa ombio?  
통곡한다 하더라도 이익 있겠는가

sosorome guweme mutembio?  
退縮하며 능히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sitabume tookabure de isinaci,  
지연시키고 머뭇거리게 되면

šuwarkiyan šusiha be alimbi.  
刑 杖 을 받게되리라.

hošoi sarganjui be absi ombi,  
和碩親王의 公主 를 어떻게 할 것인가?

hokofi gamara doro bio?  
離縁하고 대리고갈 도리 있겠는가?

honin sarin jeterakū,  
염소고기 잔치를 먹지 않고,

holbome burakū ai orga bi!  
配匹하여 주지않고 무슨 계책이 있겠는가!

hejehe urun be absi ombi,  
약혼한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hebeseme iciyarakū mutembio?  
함께 의논하며 처리하지 않고 되겠는가?

hese alahakū ocibe,  
勅旨를 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holbome gairakū ai arga bi!  
配匹하여 娶하지 않고 무슨 계책이 있으리요!

daruha urun be absi ombi,  
어려서부터 길러 키워던 며느리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dahūme bederebuci utembio?  
다시 되돌려보내서 될 일인가?

dancan i ergide hebešefi,  
親家 편에 상의하고

dahabufi gamaci acambi.  
수행시켜서 대리고 가는 것이 마땅하리로다.

baitangga jaka be gaisu.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가라!

baire were be bodeki;  
구하는것과 德化하는것을 꾀하고 싶도다!

bana i langgū be gaisu.  
이 지방의 倭瓜를 가지고 가라!

dergi abka de tariki.  
동쪽 하늘아래에 심고 싶도다.

(五)

siren mama be gaisu.

祖 上 할머니 를 데리고 가라!

sirame juse fusembi;

계속해서 자손이 번식하리라;

harikan mafa be gaisu,

祖上 할아버지를 데리고 가라!,

horhon i ulha fusembi.

우리속의 가족이 번식하리라.

ilan minggan niyalma anggala,

三 千 名의 인구가

niyaman nimere be katunja;

부모의 병환 을 참고견디라!;

ihan sejen be tohome gaifi,

소를 수레 에 매어달아서

yabure baita be dagila

출발할 일 을 준비하라!.

yubure ursei gosihon,

떠날 사람들의 통곡에

yasai muke olhorakū;

눈 물이 마르지 않는구나!

amala fudere geren seci,

뒤에서 餓送할 사람들은

amcame songgome nakarakū.

뒤 쫓으면서 통곡하며 끝이지 않는구나!

morin tohoho moo sejen

말을 메어탄 나무 수레는

mosikūng tosikūng yabumbi

모시공 도시공 소리내며 가는구나!

den fangkalan be ilgarakū,

높고 낮은곳 을 가리지 않고

der hoo seme kaicambi.

줄기 차게 돌진하는구나!

alin jugūn be yabumbi,

산 길 을 가기도 하고,

amba ihan be dalimbi;

큰 소 를 몰기도 한다.

ama mafa baci aljafi,

아버지는 할아버지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amasi tatašame songgombi.

뒷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통곡한다.

daban jugūn be yabumbi,  
고개 길 을 가기도하고,  
dada liyoliyo sembi;  
입을 크게 벌리고 무능을 조소하기도 하고,  
danaha hafan i horon de,  
관장하는 관리 의 위세에  
dar seme šurgeme gelembi.  
몹을 부르르 떨면서 두려워하기도 한다.

ili jecen goro bihe,  
伊犁 변경은 멀기도 하더라!  
isinara de yala ekšehe;  
도달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서둘렀도다.  
inenggi dobori dalire de,  
밤 낮 할것없이 쫓아가기에  
niyaman silhi meijehe.  
염통과 쓸개가 미어지는구나.

## (六)

aiman be kadalaha amhūlang,  
部族 을 관할하던 압후랑  
amba boronggo arselang(人名);  
위세 당당했던 아르서랑;  
abka gererebe aliyarakū,  
하늘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  
amgaburakū kaicara hūjang šu lang.  
잠 재우지 아니하고 합성을 지르던 후장슈랑(人名).  
jugūn de baitalara fayabun be,  
노자로 사용될 비용 을,  
jurgan ci sidame bahabuha;  
官廳에서 뜯어 내게 하고  
juken doosi hafasa,  
평범하고 탐욕스러운 관원들은  
jumanggi teni tebuhe.  
주머니를 겨우 채우도록 했다.

dabsun sogi i menggun seci.  
소금과 나물을 살 銀子 라면  
daci buhengge tesumbihe;  
처음에 급여한 것으로 충족했었다;  
danaha hafan doosi ofi,  
관장한 관원이 탐욕스러워서,  
dabarhan teni tebuhe.  
돈주머니가 겨우 차게 되었구나.

gobi jugun dehi dedun,  
 사막의 길은 40의 宿處이러니,  
                   gūnici inu hanci waka;  
                   생각하면 이도 또한 가깝지 않도다;  
 inenggi dobori yabure de,  
 밤 낮 가리지 않고 걸이간 때에,  
                   ihan i fatha mangga jaka.  
                   소 의 발굽은 힘센 것이로다.

yabure jobolon uttu de,  
 길건은 걱정이 이와 같으니,  
                   niyaman silhi meijembi;  
                   염통과 쓸개가 미어지는구나.  
 yaka nimeku teisuleci,  
 누구라도 병에 걸리게 되면,  
                   yasa tuwahai bucebumbi.  
                   눈 멀거니 뜨고서 죽어가는구나.

hehesi juse ujimbi,  
 여인들은 자식들을 기르는데,  
                   hosire boso aibide bimbi?  
                   이들에게 입힐 피육은 어느곳에서 구할것인가?  
 umainaci ojarahū de,  
 부득이 할 때에 는,  
                   orho de hosifi yabumbi.  
                   풀잎으로 둘러 싸고 가는구나 !

hanggame katame yabumbi,  
 숨이 막혀서 허덕거리며 가는데,  
                   hanggai alin de isinaha;  
                   抗愛 山 에 이르렀도다.

halhūn de yala hamirakū,  
 더위 에 진정으로 견디지 못하고,  
                   hacihiyame yabure be ilinjaha;  
                   힘써 걷는것 을 머물렀도다;

uba tuba be tuwanahai,  
 여기 저기 툄 두리번 거리면서

(七)

ujumel sogi be sabuha;  
 우주먼 나물 을 보았구나 !  
 urgunjeme tunggiyeme gaiñi,  
 반가와서 좋아하고 주어 가지고는  
                   uhei ebime jetehe.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도다 !

šadame cukume yabuhai,  
피로에 허덕이며 걸어가면서

sain noyun nukte be duleke;  
아름다운 노운 유목지를 지나고

sogi tunggiyeme jetehei,  
나물 캐서 먹으면서,

šuwe yuyume bucehe akū.  
내내 굶으면서도 죽지 않고

uttu yabucibe inu hūdun,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또한 빨리도

uliyastai be emgeri duleke;  
우리야스타이(地名)를 한차례 지났도다.

hūsutuleme hacihiyame yabuhai,  
모든 힘을 다하며 서두르며 걸어가면서

hobto be inu tucike.  
홉도(地名)를 또한 지났구나.

goro deri tuwaha,  
먼곳에서부터 보았네

gobi i teile sabuha;  
고비사막만을 오직 보았네!

gūniha ci tulgiyen geli,  
생각했던 것 외에 또다시

gosihon mangga de tušaha.  
고통이 무거운때에 뺨을 만나는구나!

ududu inenggi jugūn de  
허다한 많은 날을 길에서

orho muke šuwe akū;  
풀과 물이 전연 없고

efujefi waliyaha sejen be,  
부서져서 버려버린 수레를

ertele Kemuni bi sembi.  
이제까지 항상 있다고 한다.

ba ci aliha irgese,  
고향에서 이산한 백성들은

beyebe karmara be bodoho;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획책하고,

barluk de isiname,  
바르록(地名)에 도착하매

baifi tuweri be hetuhe.  
시러 겨우 을 보내고,

niyengniyeri be dulembuhe.

춘 삼월 을 보내니.

ilan dui biya oho;

3, 4 월이 되었는데.

niyanciha mutuha manggi;

풀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난 후에,

ili baru juranaha.

伊犁로 향해서 출발했도다.

tala bigan i jugun haksan,

들 녘의 도로는 험란하고

talang sejen yabure mandan;

짐실은 수레는 느릿느릿 가는데,

tandame toome yabuhai,

어르며 욱질하며 끌고가는 사이에

tarbahatai be duleke.

다르바하다이(地名)을 통과했도다.

inenggidari yabuhai,

날마다 날마다 계속해서 가면서,

ihan gemu sadaha;

소들이 모두 피로하고,

ergeltei yabuhai,

밀고 밀어서 가면서

ehe sejen inu efujehe.

고장난 수레는 아주 부서졌도다.

ihan be ergebumbi,

소들 을 쉬게 하고,

sejen be dasatambi.

수레들을 수리하고

juwan orin inenggi,

10일과 20일 날에는

joritai ergeme teyembi.

일부러 휴식하며 쉬게했더니.

ergeme teyehe bade

휴식하며 쉬던 곳에

enteheme gebu tutaha;

영원히 그 이름 남았도다.

sirame i urse tuba be,

뒤를 잇는 사람들은 그곳을 이름지어

sibetu seme gebulehe.

錫伯渡라고 이름한다.

coohai meyen yabumbi,  
兵士의 대열이 행군한다.

Coron cordome sebjelembi;  
胡笳 불면서 즐거워한다.

dobori ergehe bade,  
저녁에 쉬던 곳에서

dombor fitheme tookabumbi.  
뚝보르(樂器) 타면서 위로한다.

Labdu jobocun be aliha,  
수많은 노고 를 견디어내고.

lalame yuyume yabuha;  
지치고 땀으며 걸어왔노라.

lob jeng keo be dulerede,  
롭 쟁 겨우(地名)을 통과할때에

elkei edun de deyehe.  
신들 바람 에 날려갔노라.

tanggū hacin jobocun be,  
온(百) 가지의 노고 를

taka katunjafi yabuha;  
잠간사이 참고 참아서 걸었노라.

tookume sitame yabucibe,  
지연되고 또 지연되어서 걸었다고 하더라도,

talki angga be dosiha.  
달기 어귀 로 진출했고

šullhe i holo haksan seci,  
술허(地名)의 골짜기가 험난하다 하더라도

šurdeme eyehe muke doksini;  
멤돌아서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없고,

sejen yabure jugūn akū,  
수레 밧고간 길이 없으니,

šame tere arga akū.  
보면서도 그 계책이 없고.

lak seme hebešeme toktobuha;  
마치 그때에 상의해서 결정했나니

nerginde gala aššaha;  
그 기회에 손을 움직였도다.

narhūn holo dorgide,  
좁은 산골짜기 안에서

nadanju juwe kurhu araha.  
七十 二人이 領頭人이 되었구나!

tanggū geren uhei hūsutulehe,  
 一百 대중의 모두가 힘을다해서,  
 talki holo be fondo tucihe;  
 달기 팔짜기를 뚫고 나왔노라.  
 nadan biyai orin, orin juwe de,  
 7 月の 20, 22 일 에는  
 naranggi ili bade dosiha.  
 끝끝내伊犁 지방에로 진입했노라.

baturu kiyangkiyan sibesa gashūmbi,  
 용감하고 진장한 錫伯人들은 서약했노라.  
 baturalame ujen jecen be karmadambi;  
 용력을 다해서 변 경 을 수호할 것이라고!  
 mangga bata ehe heturi de sujadumbi,  
 강 적과 惡 事 를 방지할 것이며,  
 mafari gurun i emulen be akdulambi.  
 祖 國 의 안녕 을 방비할 것이라고!

(一) 人名. “dawaci”(다와치; 達瓦齋)에 대해서.<sup>(17)</sup>

jun γar(準葛爾)族의 勇士 “hūn taiji”(皇太子)의 五代孫이고, 유명한 將軍 “amba cering dondodu”의 손자이며, “k’aldan sering; 噶爾丹策凌)의 從兄弟이다.

淸國(daicing gurun)의 초기에 東方蒙古의 jun γar(準葛爾)族이 점차로 흥기하여, “k’aldan”(噶爾丹)의 jun γar族의 大權을 장악한 후에, K’aldan은 “suwayan olos”<sup>(18)</sup>와 비밀리에 탐색하고, 淸國을 배반하여 그 자신을 “ka han”<sup>(19)</sup>이라 존칭했다.

1690년과 1696년에 康熙帝는 2차에 걸쳐 친히 率兵하고, 전후에 “butung, jai joo modo” 등의 지방에서 噶爾丹(k’aldan)<sup>(20)</sup>을 크게 격파하니, “k’aldan”은 飲藥하고 自盡했다.

그 후 數代가 지나서 “dawaci”(達瓦齋)<sup>(20)</sup>代에 이르러서, 準葛爾(jun gar)族의 大權을 全적으로 “dawaci”가 달취하고, 親히 “han\*(皇帝)이라 자칭했다. 이 때에 “dawaci”는 jun γar貴族의 欺瞞과 補助下에 또다시 배반하고 淸國에게 대적하게 되었다.

1755년, jun γar는 露國(olos gurun)의 세력에 의지해서 나라를 배반하고, 조국을 사분오열로 만들어, 가공할 상태로 되기를 힘써 피하였기 때문에, 乾隆帝는 국가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朝廷의 大臣 “bandi”(班弟)<sup>(20)</sup>를 “amargi be toktobure jiyangjyun”(北方鎮定將軍), “amursana”(阿睦爾撒納)<sup>(20)</sup>를 “jecen be toktobure hashū ergi aisilara jiyangjiyun”(邊境鎮定左翼輔佐將軍)으로 任命하고, “uliyasutai”<sup>(21)</sup>의 北方道路를 통해서 출병했다. 또

(17) 以下는 同書 pp. 18~23까지의 “suhēn”(註解)을 참고했음.

(18) “suwayan olos”은 「黃露國」을 意味하고, 아마도 “Russia”를 指稱한듯.

(19) “ka han”은 蒙古語의 “qayan”(皇帝).

(20) 固有名詞에 對한 漢字音은 中國側 記錄에 依함.

(21) jun γar 地方에 있는 地名.



한 “yungcang”(永常)을 “dergi be toktobure jiyangjiyun”(東方鎮定將軍), “saral”을 “jecen be toktobure ici ergi aisilara jiyangjiyun”(邊境鎮定右翼輔佐將軍)으로 任命하고, “bar-kul<sup>(22)</sup>”에서부터 東方道路를 통해서 출병하고, 兩路의 兵士들을 “bor tala”에서 합세할 것을 약속하고, 兩路에서부터 “ili”(伊犁)를 협공하여 진출했다.

이때에 道路沿邊의 jun yar의 민중은 arki, nure(酒類)를 이고, 지고 나오고, 염소(羊)를 말에 싣고 와서 淸國의 兵士들을 환영했다.

민중들의 도움을 받아서 淸國의 兵士들은 100일안에 즉시 伊犁(ili)에 도착했다.

한편 “dawaci”는 6,000兵을 인솔하고 gedeng山을 점거하고 淸國兵에게 반항했다. 이에 淸國의 兵士 25名은 敵의 야영을 격파하고, dawaci(達瓦齊)의 兵士를 크게 격멸했다.

이때부터 dawaci는 6·70名の 부하를 수행시키고 도주하여, 전방 天山을 통과하여, “uši” 지방에 도착하고, uši城의 “akima bek” uigur족의 “hois”<sup>(23)</sup>에게 포로로 잡힌 바 되고 淸國의 兵士에게 넘겨졌다. dawaci는 마침내 멸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명백하게 알기 위해서 특히 淸國의 乾隆年間に jun yar 지방을 평정하고, gedeng山에 기념하여 세운 表彰碑文을 인용하여 쓰노니 힘써 읽을지어다!.

gedeng山에 立碑한 表彰碑文(gedeng alin de ilibuha eldengge wehei bithe)

gedeng alin den colgoropi,

거덩 산 높이 치솟아서,

geren hūlhū kūwaran be akdulambi;

모든 盜賊이 牆壁으로 依據하니,

gehun iletu muse cooha isiname,

明 顯한 우리 軍士: 도착해와서

genggume akdulahangge dartai efujembi.

앞을 가리며 지키던 것을 잠시동안에 격파했도다.

ere gedeng alin haksan hailashūn bihe,

이 거덩 산은 험란한 산이었고

ede hūlha feye obume genggeduhe;

여기를 도적이 소굴로하고 모여들고 있었다.

eldengge horonggo musei cooha isiname,

威 儀 堂堂한 우리 軍士가 도착해와서,

ejelehe feye uthai efujehe.

점거한 소굴을 즉각 파괴했도다.

yar seme cooha be yabubuha,

연속해서 軍士 를 步行하게 해서

(22) jun yar 地方에 있는 地名,

(23) 回回教人을 指稱함,

yala ili bira de isinaha;  
과연 伊犁河 에 도착하니.

yarure cooha juleri bifi,  
인도할 軍士는 전방에 있으면서,

yaya jahūdai be musede alibuha.  
모든 선박 을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julesi ili bira be jakūn ineggi dooha,  
전방의 伊犁江 을 8일 동안에 渡河하고,

jureleme yabume gedeng alin de isinaha.  
거듭거듭 걸어서 거당 山 에 도착했다.

julesi de lebenggi amargide hada bifi,  
전방에는 진흙땅이요, 후방에는 峰崖 이고,

judun be ejelefi iseleki seme arbušaha.  
산등성이를 접거하고 저항하고자하여 행동했다.

ememu terei untuhun be gidaki sembi,  
어떤때는 그들의 허를 찌르려 했고,

emgeri de terei geren be gisdabuci ombi;  
한번 에 그들 大敵 을 전멸시킬수 있었다.

ere aika ja i muteburengge wakao,  
이 어찌 쉽게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나니었던가?

eiterecibe musei horon be asarambi.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위력을 저장한 것이로다.

musei horon be asararangge maka,  
우리의 위력 을 저장한다는 것은,

muritai hülha be ujirerengge waka;  
형포한 도적 을 살려주는 것은 아니로다.

murušeme amala bodoki seme ofi.  
대체적으로 후일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고

mutebure amba gungge ede badaraka.  
능히 할 수 있는 大 功이 여기에 충족했다.

esei geren musei aha,  
이들의 대장은 우리의 奴僕이니,

emgeri sanggai hese wasimbuha;  
한번 완전히 성취한 勅旨를 내렸도다.

ehe sain be suwaliyame waci,  
악과 선 을 혼합해서 죽인다던,

ejen i gūnin be jurcerahū seme gūninaha.  
主上의 御意 에 위배될까 하고 상기했다.

tuttu ilan bodoro be tucibuhe,  
그와같은 三 計 를 짜내서,

tubai cooha be orin juwe nemebuhe;  
그곳의 軍士를 二十 二萬으로 증가시켰다.  
turulabume hūlhai kūwaran be dobori gidanabuha,  
率先해서 賊 營 을 밤에 가서 격파케 하고,  
tuman geren dorgime šurgecehe.  
萬餘 大軍을 전전공공케 했다.

albatu meimeni gūnin jafambi,  
臣民 각자가 생각을 잡고  
ainahai sini fonde karmambi;  
어떻게 해서 그대의 때를 지킬 수 있겠는가?  
ainu si mentuhureme ulhirakū,  
무슨 이유로 그대는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하는가?  
aibide ukame geneki sembi?  
어대로 도망해 가려고 하는가?

si ukame burulaha,  
그대 왜 주하니  
simbe we bibume halbuha;  
그대를 누가 만류해서 감싸주겠는가?  
siderileme huthufi coohai kūwaran de benjihede,  
손과 발을 묶어서 兵 營 에로 보냈을때에,  
sitabuha seme untuhuri bodonggiyaha.  
나후되었다 해서 헛되이 自言自語했도다.

onggolo niyalma kemuni gisurembihe,  
先 人들이 항상 말했었나니,  
oshodome wara anggala uji sehe;  
포악하게 죽이기 보다는 차라리 살려주라 하고 말했나니.  
olji be alime gaiḡi guwebuhengge,  
俘人을 接受하고 寬免하는 것은,  
onco funiyagan be bi eldembuhe.  
넓은 관용 을 내가 빛내는 것이로다.

julgei han gurun uhei karmara hafan ilibuha,  
옛 漢 나라는 全體를 保護할 官吏를 임명고,  
julgei tang gurun jiyangjiyun unggifi tuwaki-yabuha.  
옛 唐 나라는 將軍을 보내서 감시시켰었다.

jufeliyen caliyan fayabume geren jobocibe,  
錢 糧을 낭비하며 많은 걱정을 하더라도,  
jušen ume dahanjiha be atanggi sabubuha  
滿洲의 臣僕이 항복하지 않는 것을 언제 보여줄 것인가?

emgeri aha obuci kesi isibumbi,  
한번 臣僕이 되면 天恩이 미치게 하고,

emu adali dahaci jurgan i fulehulembi;  
 한결 같이 항복하면 의리 로 惠施할 것이로다.  
 erebe gedeng alin de folobufi,  
 이를 거덩 山 에 刻書하고  
 enteheme bunai jalan de ulhibumbi.  
 永遠히 十萬 世 에 會得시키노라.

(二) 名人 “bandi”<sup>(20)</sup> (班弟)에 對해서.

淸國時代의 蒙古鑲黃旗人(cing gurun i forgon i monggo kubuhe suwayan gūsai niyalma), 姓은 “borijon”. 官學의 「監生」(alban tacimsi)에서부터 「中書」(dorgi bithesi)로 임명되었다.

雍正(hūwaliyasun tob) 初期年間に 「中書長」으로 승진했다.

乾隆(abkai wehiyehe) 年間の 1755년 2월에 “dawaci”(達瓦齋)를 평정하기 위해서, 乾隆皇帝는 二路로 軍士를 동원하고, 그 一路에 “bandi”(班弟)를 「後方鎮定將軍」(amargi be toktobure jiyangjiyun)에 임명하고, 軍士를 인솔하여 “uliyasutai”에서 출발하여 北路로 진군했다. 다른 一路에는 “yungcang”(永常)<sup>(20)</sup>을 「東方鎮定將軍」(dorgi be toktobure jiyangjiyun)으로 임명하고, “bar kul” 지방에서부터 出軍하여 東路를 진군했다.

總五萬兵과 七萬의 馬匹을 이끌고, 5월에 “bandi”와 “yungcang”의 두 將軍이 “bor tala” 江에서 합세하고 함께 “dawaci”(達瓦齋)를 멸망시키고 伊犁(ili) 지방을 평정했다.

“dawaci”를 평정한 후에, 淸國의 政務部員은 二路의 大軍을 철병시키고, 다만 “bandi”와 “urungga”로 하여금 “ili”(伊犁)에 남아 있게 하고, “amursana”(阿睦爾撒納)<sup>(20)</sup>와 “saral” 등과 함께 伊犁地方을 事後處理하게 했다. 끝에 가서 “amursana”가 다시 배반하고, 그의 일당인 “abagas”와 “hadan”등이 서로 계속해서 회합하고, 東路의 각지 驛站을 약탈하며, 北方에서부터 이어지는 道路를 作亂했다.

“jaisang”<sup>(24)</sup> kesimu”는 “ili” 地方 驛站을 鹵掠하며, 나라의 軍士를 곤란하게 했다.

8월의 24일에 “bandi”와 “urungga”는 伊犁에 駐屯하는 兵士를 인솔하고, “kungges” 지방으로 향해서 철수하며, 29일에 “kesimu”, “dondok manji”, “balang”등이 jun yar의 兵士를 거느리고, “ulan kutel” 지방으로 와서, “bandi”와 “urungga”를 굳게 포위하고 감금했다. 이 때에 “bandi”와 “urungga”에게는 다만 伊犁의 총체적인 사무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駐屯했던 五百兵만이 남아 있었고, 전력을 다 해서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함께 自盡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 했다.<sup>(25)</sup>

(三) “amursana”(阿睦爾撒那)

人名. 淸國의 蒙古 hošod族의 “ladzang”汗의 孫子이고, “danjung”의 아들이며, “sewang

(24) “jaisang”은 漢字 「宰相」의 音寫이라고 생각된다.

(25) 여기까지는 本書 pp. 23~25의 註釋을 참고함.

alabutan”의 遠孫이다. “danjung”은 “sewang”의 딸(sargan jui)과 結婚하여, 먼저 “banjul”을 낳았다. “danjung”이 피살된 뒤, 그의 妻는 “honjon”族의 族長과 다시 결혼했다.

그때에는 임신되어 있었고, 그 후에 와서 “amursana”를 길렀으니, 따라서 “amursana”는 논리적으로 “hošot”族의 “danjung”이 피살되기 前에, 그의 妻의 유복자이고 “banjul”의 아우에 해당한다.

“amursana”(阿睦爾撒那)는 1722년에 출생하고, 1757년에 歿했다.

그는 我國(musei gurun)<sup>(26)</sup>의 東北邊境(dergi amargi ujen jecen)에 위치하는 “tarbahatai”(塔爾巴噶台)의 한 girin地에서 유목하며 살고 있었다.

18세기의 50년대에 jun gar(準噶爾)의 동쪽 “tankan”내에서 汗位를 서로 다투고 있던 때에 성장하여, 상당한 시간을 “jun yar”의 汗位에 오르기를 힘썼다.

“amursana”(阿睦爾撒那)는 원래 “hoit”族의 太子이었다. 乾隆年間に jun yar族의 내부에서 반란했었을 때에, “dawaci”(達瓦齊)와 함께 軍士를 습치고 “ili”(伊犁)로 진출했다. 그리고 喇嘛僧 “darjan”에게 懇求해서 “dawaci”를 汗으로 되게 했다.

이에 대적하는 “turbet”族을 또한 침범해서 취하고, 그들의 “taiji”(太子)를 항복시켰다. 이때부터 “amursana”는 그의 帳房(maikan)地인 “ercis”江의 주위를 에워싸고 이전케 하고, 점차로 “jun yar”族을 침략할 생각이 생겨나서, “dawaci”와 함께 반목하고, 수차 서로 죽음을 걸고 싸웠다.

그러나 그 자신이 역부족으로 인해서 두려워 하고, 중병을 거느리고 淸國(cing gurun)에 항복했다. 그리고 항상 伊犁地方을 항복시켜서 귀속시킬 것이라고 奏言했다.

이에 淸國政府는 그를 親王(cin wan)으로 封하고, 또다시 「邊境鎮定左翼輔佐將軍」(jecen be toktobuha hashū ergi aisilara jiyangjiyun)으로 임명하고, 또 “bandi”(班第)에게는 그 副官(ilhi)으로 임명하고, “dawaci”를 平定하고 格파한 功으로 “fan wang”(fan 王)으로 封하게 했다. 이 또한 “amursana”의 생각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불만이어서, 항상 全 “jun yar” 지방 전부를 관할통치하기를 힘써 바라고 있었다.

이때부터 점차로 배역하기 시작하고, 재삼 번복해서 또한 “jun yar”族을 誣誣해서 배역케 했다. 전후에 “sereng”, “joo hūi”(兆惠), “cenggunjab”등에게 패하고, 두번이나 露國國境內로 逃入하고, “mafa hargasi”에게 주검을 당했다. 淸國當局은 露國에서 그의 遺骨을 火葬後에 돌려 받았다.<sup>(27)</sup>

(四) “joo hūi”(兆惠)는 「兆將軍」(joo jiyangjiyun)이고, 淸國의 「滿洲省黃旗人」(manju golo suwayan gūsai niyalma)이고, 姓은 “uya”(hala uya), 字는 “hefu”(tukiyehe gebu be hefu)라고 했다. 雍正(hūwaliasun tob) 年間に “bithesi”(筆帖式)에서 「軍機」(coohai

(26) 이는 本書의 整理編纂者인 “gwan sings'tai”의 自稱임.

(27) 以上은 本書 pp. 25~27의 註釋을 참고함.

nashūn i ba)로 진급하고, 「中書」職(dorgi bithesi)으로 補轉되었다. 계속해서 「議政大臣」(hebei amban)에로 승진하고, 伊犁(ili)에 주재했다.

ūlet(厄魯特)族을 정벌하고, “hojiyal”族을 평정했으며 “anjiyan”의 諸族을 항복시켰다. 그 功으로 「一等緞密用策勇士公」(ujui jergi fili bodogonggo baturu gung)으로 封하고, 다시 「輔助大學士」(aisilara aliha bithei da)를 補授하고, 「太子太保」(taidzi taiboo)를 가해서 封했다. 歿後에는 追尊해서 「文章營出」(šu colgoroko)이라는 명칭을 수여했다.<sup>(28)</sup>

(五) sirin mama(祖上 할머니)

錫伯(sibe)族이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자신들의 祖上들을 공경하며 祭祀하는 것은 “saman”(薩滿; 巫人)이나 “lama”(喇嘛; 佛僧)을 신앙하는 것보다는 더 심원하다. 古代부터 즉 祖上の 祖父들, 祖母들을 祀祭하면서 왔는데, 「할머니 祖上」을 “sirin mama”라고 하고, 「할아버지 祖上」을 “harikan mafa”라고 한다.

“sirin mama”는 즉 「할머니 祖上; 女祖上」이며, 「女人」이 「집主人」이고, 집 내부의 일을 처리한다. 그러므로 大室의 北方壁의 東方구석에 매어서 달고 祭祀지낸다.

그 뜻은, 「할머니 祖上」은 “sirin mama”이기 때문에, 子孫들 世代를 蕃殖하며 크고 넓게 하여 끝이 없게 한다는 뜻이다.

(六) amhūlang

錫伯族이 동방으로 이동해 올 때에 監督官이었다. 滿洲人이고 奉天城의 鑲黃旗의 協領(旗長)이었다.

(七) ujumel sogi(野菜名)

錫伯族이 乾隆 30년, 3월 10일에 “uliyasutai”(蒙古國境內의 地名)를 通過하고, “k’obdo”(蒙古國境內의 地名. 蒙古名 “jiryalangtu” 「安樂하다. 平和스럽다」의 뜻)을 지나서 Altai山에 가까이 오니, Altai山の 雪水가 많이 녹아서 홍수로 범람하고, 길을 걸어 갈 수가 없었고, 수일을 기다려도 물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Kocis” 山路를 우회하여 걸고 “uliyasutai”에서 싣고 가져 온 2개월분의 食糧(小麥粉과 米)이 거의 다 없어져서, 기근에 곤궁했기 때문에, 道路沿邊에 있는 “ujumel” 야채를 채취해서 먹으면서 걸어 왔다.<sup>(29)</sup>

gūsin duin baturu de gasambi<sup>(30)</sup>  
삼십 사명의 용사를 통곡하노라!

pa·toba<sup>(31)</sup>

(28) 以上은 本書 pp. 27~28의 註釋을 참고함.

(29) 以上은 本書 p. 32 註釋에 依함.

(30) 이 詩는 本詩集의 아홉번째의 詩로서 pp. 68~71까지에 실려있다.

(31) 이 詩의 筆者名이다.

—gūsin duin baturu sai derengge eldengge

삼십 사명의 용사들의 영 광스러운

amsulaha jai baruniya be ejetulere jalin araha—.

은 祭 日 을 기억하기 위해서 쓰노라

niowanggiyan šanyan alin,

푸르고 흰 산은

baturu sai eifu be torhoho hecen.

용사 들의 慕 를 둘러싸고 있는 城이로소이다.

torhome bihe huweki usin—

둥글게 둘러 있는 기름진 논과 밭은—

baturu sai jalin saikan be samsibumbi!

용사 들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혼날리고 있나이다!

jing he birai muke,

징 허 江의 물은

erin akū suwembe uculembi.

어느 때나 당신들을 노래하고 있나이다.

bolokan šun i elden,

맑디맑은 햇 빛은,

duin forgon de suwembe torombumbi,

사 계절 을 당신들을 鑲魂하고 있나이다.

cib ekisaka dobori—

悄然한 밤에는—

genggiyen biya giltaršara usiha,

밝은 달에 번쩍거리는 별들이

suwende gucu arambi.

당신들의 벗이로 소이다.

suweni tuwai gese eldengge yasa be nicufi,

당신들의 불과도 같은 빛나는 눈 을 감으시고

elheneme amgaki!

평안하게 잠드소서!

suweni baturu horonggo suru fuyangga,

당신들의 용감하고 위엄있는 희디흰 영혼이여!,

untuhunde sukjikini!

허공에서 尙享하소서!

uksura be sulambure jalin,

동족 을 살리기 위해서,

suwe eldengge fiyangga halhūn senggi be eyebuhe.

당신들 빛나는 영혼들은 뜨거운 피 를 흘리셨나이다.

irgejengge eten aisi i jalin,

黎 民 의 이익을 위해서

suwe tob ambalingū i ergen beyebe šelehe.

당신들은 당당하게 도 身命을 버리셨나이다.

be enteheme suweni jalin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을 위해서

eldengge horonggo i uculembi.

빛나는 위력을 노래 하겠나이다.

den alin šumin mederi i gese,  
높은 산, 깊은 바다 와 같은,

saikan gebu tumen jalan de ulabukini!  
아름다운 이름 만 세 에 전하겠나이다!

gūsin duin agu:  
설혼 넷 형들이여!

enenggi bolgo wesihun musei bana de deduhe,  
오늘 밝고 높은 우리의 토지에 누우시고

emu aniya duleme geli emu aniya oho.  
일 년이 지나고 또 일 년이 되었나이다.

suweni torhome ner ner niowanggiyan orhoi sektefun,  
당신들을 도량도량 둘러있는 푸른 풀 방석,

jurgime guwendere jing he birai muke,  
찰랑거리며 재잘거리는 징 허 강의 물결,

onco bigan i umiyaha wakšan i guwendere jilgan,  
넓은 들 의 벌레와 두꺼비의 우는 소리는

suweni funde gasara ucun uculembi.  
당신들 대신에 통곡하는 노래를 노래하고 있나이다.

Wenderhen bedereme,  
阿蘭새 돌아가고

yengguwehe maktame saišambi!  
앵무새 찬양하며 칭찬하나이다!

suwe elheneme amguki!  
당신들은 평안하게 주무시라!

boigon i emgi tolgin de dosifi ume getere;  
가족 과 함께 꿈에 드시고 잠깨지 마르시라!

beten jai hailan fulehe,  
지렁이는 또다시 느티나무 뿌리에서

suwende saikan mudan be ulame donjibukini.  
당신들에게 아름다운 곡조를 전해 들려주리이다!

1948年 gūlin에서

(1984年 5月)